'청소년만을 위한 문학' 없다

문학향유는 사치?… 논술 계기 새롭게 관심갖기도
아동과 성인물의 중간 수준 도서 보급돼야

서점가 청소년 서가에 '논술' 이름표를 단 철학, 문학 시리즈 도서들이 홍수를 이룬다. 입시를 겨냥한 논술 참고용 기획물들은 대개 세계 유명 고전을 학습에 연계 해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 요약과 지도위원의 해석, 모의 논술 문제 등을 첨가 하거나 아예 작품 원문이 아닌 요약본만 한권에 수십 편 씩 담아내기도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문학'에 관심을 기울일 시간조차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같은 청소년 문학 출판물의 부재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책따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독서지도 교육을 하고 있는 우신고 교사 임영환 씨는 "통합형 논술은 공교육 상에서 구현할 수 없는 것으로 진정한 논술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 성장단계에 따라 논리, 감성 등 종합적 학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논술이란 논리적 사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구현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면서 "청소년기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자아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문학 출판물의 부재와 청소년들의 문학활동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일부 해소되는 상황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청소년 사이버 문학마당 '글틴(teen.munjang.or.kr)'은 이를 위해 생겨났다. 운영총괄을 맡고 있는 정우영 씨는 "오프라인 문예지나 유관단체가 많이 필요한 현실이"라면서 "그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서들의 출판 시도가 있긴 했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청소년만을 위한 본격 문학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청소년을 위한 문학이 입시위주 문학으로 환치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논술이 청소년 출판시장에 끼친 순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 출판사는 물론 청소년 스스로도 책과 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소홀히 대했던 국내외 고전 문학 작품들이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이런 작품들은 아직까지 '청소년 문학'이라고 부르기에는 내용면에서 부족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작가들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글틴'의 정우영 씨는 "결과적으로는 논술 때문이지만 최근 출판사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통합형 논술을 겨냥해 젊은 집필진을 내세운 새로운 형태의 문학 도서들이 출간을 앞두고 있다."면서 "포화 상태의 아동 출판사들이 청소년 도서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논술의 영향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세계청소년화제작"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는 문원출판사의 김순자 편집장은 "논술 타이틀을 달고 나와야 그나마 책 읽을 명분이 선다. 결국 청소년을 위한 문학의 부재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징검다리 역할을 위한 도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판매 부진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곤 한다. 그래서 안전하게 출판을 하려면 검증된 작가들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출간하곤 한다. 청소년 문학 출간은 사실 모험에 가까운 셈이다. 아동물과 성인물 사이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청소년 문학은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우리 청소년의 모습을 빼닮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출판계의 입장과 문학을 향유하는 것을 일종의 사치로 여겨질 만큼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실이 청소년 문학 출판을 저해하는 일차적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럴수록 기존 작가들과 출판인들이 스펙트럼을 넓혀 청소년 문학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취재_송보경 기자